



2011 **8**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20호

발행:이중섭 / 총무 :구해룡 016-9567-6797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wing44@paran.com

졸업
50주년행사

내년 5월13일,

제주 **금호**리조트에서...

배종길

행사추진위원장

졸업 50주년을 8개월 남짓 남겨둔 지난 7월3일, 70순의 노인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기 위한 사전답사와 전 동문이 참석하는 마지막 모임이 될지 모르는 이번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역 회장단과 추진위원들이 제주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첫날저녁,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한잔 술도 뒤로 미룬 채 추진위원장의 이번 행사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참여동문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청취한 다음 우선 행사일자와 이틀간 머무르게 될 숙박장소를 논의한 결과 일자는 내년 5월13일부터 2박3일간, 장소는 대연회장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주변경관도 뛰어나며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기도 적당한 이곳 금호리조트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행사시작일을 5월13일로 잡은 데에는 행사에 앞서 5월8일 어버이날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이라도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배려 때문입니다.

둘째, 셋째 날은 이른 아침부터 미리 마련한 일정표에 따라 주요관광지역현황과 이동시간을 확인하고 먹는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주도의 먹거리도 곁들여 점검하면서 여행일정에 대한 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여행일정과 소요경비에 대해 여행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그동안 급등한 유가와 음식값 때문에 예상한 가격으로 견적이 나올지 걱정됩니다만 아무튼 조기에약으로 큰 폭의 할인을 기대해 봅니다.

동문 여러분의 50주년행사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일찌감치 불러 모으기 위

해 이번 모임에서 합의된 ‘참여동문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공개하오니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참여동문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안

1. 참여예상동문

구분	초청대상동문			참여동문(최소)		
	계	A그룹	B그룹	계	A그룹	B그룹
마산	118	63	55	75(60)	55(50)	20(10)
서울	105	60	45	55(40)	40(30)	15(10)
부산	76	37	39	40(30)	30(25)	10(5)
기타	22	-	22	10(5)	-	10(5)
계	321	160	161	180(135)	125(105)	55(30)

※ A그룹은 최근 3년간 1년에 한두 번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
 B그룹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동문
 기타는 동창회가 없는 지역과 외국에 거주하는 동문

2. 참여대상 확대를 위한 주소확인

(1) 마산(17명)

김국치 권병재 김병석 김영일 김웅재 민지식 박광일 박상흠 박영철 설갑영 송인규 우양웅 이대우 임기섭 이송원 정종길 주윤식

(2) 서울(19명)

공성훈 김의웅 문영명 박무남 서인교 손승복 손청시 신종일 안승재 양근 이근배 이순영 이영환 이호웅 주성태 주재원 최영직 최포인 허환

(3) 부산(18명)

강대원 강철수 김성우 김영수 김영홍 김종근 박준용 심영근 이명 이명구 이정이 이창열 임무일 전두식 전용문 주종철 최재호 최종원

(4) 기타(7명)

김남수 김일수 김일섭 김종호 박상태 김청하 조규철

3. 참여분위기 조성

(1) 회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반별 동문현황 게재(7월부터 7회)
- 행사계획 공개((8월부터 2회)
- 참가신청자현황(9월호부터 게재)

(2) 개별초청장 발송(9월초)

- 동창회가 없는 지역과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
- 최근 3년간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문





신묘년 한해도 절반이 지나갔다. 어느덧 7월 한 달도 지나고 삼복더위인 炎天之節이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 두 번의 장마와 폭우는 멀리 가고 찜통 같은 더위가 예상된다.

중복을 3일 앞선 목요일 21일은 월례회날, 중성동 거침한 정식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회장과 총무가 상의하여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였다. 매월 월례회마다 장소와 식단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배려하는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한다. 회장단은 잔걸음을 놓아 한 시간 전에 도착하니 김기태 동문이 먼저 도착하여 반갑게 맞아준다. 고단한 삶에 힘겨워 하는 광영식의 밝은 미소가 매우 인상적이고, 고답적이고 능갈스럽게 앉아있는 친구들도 반가운 인사를 곁들인다.

원거리 진주에서 매월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는 고마운 장영의 친구, 진해 김기정과 배복기, 열린 동창회사무실에서 여가를 선용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손기홍, 이성환 외 여러 친구들, 보기와는 달리 성미가 호방하면서도 호기가 있고 인정이 있는 안인준, 자선사업가인 애육원 원장 전기용 친구들..... 무릇 총무는 인원점검 및 현황파악, 명단확인에 헛갈리지 않기 위해 짬을 내어 시간안배와 건사해주는 이종섭 회장의 얼굴은 지레짐작으로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이다.

짐짓 좋은 매너로 호의를 베푸는 데야 얽치고 체면이고 가릴 것 없이 열성적인 회장이다. 시쳇말로 ‘사람은 가난하면 총명함이 줄어들고, 말은 아위면 털만 길다.’ 고 했다. 일정한 경제력은 능력 발휘에 불가결한 기초라고 한다. 회장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줄이 짧은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의 물을 길 수 없듯이 줄을 늘이거나 다른 샘을 찾아야 마땅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것은 총무의 욕심 때문일까...?

참석자

광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김한경 박소학 배복기 배종길 변민욱 변재국 손기홍
 손동개 송인창 신창한 안인준 여경현 이무일 이복열 이성환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 전기용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조정웅 최광수 황희생
 이상43명

4. 참가비 최소화

- (1) 여행사와 조기계약으로 할인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함
- (2) 1인당 행사소요경비의 절반 정도를 동창회 기금에서 보조함
- (3) 과거와 같은 일반 협찬은 지양하고, 은사님에 대한 예우와 기념품, 여흥밴드 등은 지역별로 분담하여 별도 조치함

참석자

서울 : 박박중 조용석 부산 : 이의승 정현경 조영민
 마산 : 구해룡 김성규 김용인 배종길 변재국 이아인 이종량

졸업50주년을 앞두고 미리 만나보는 그때 그 친구들

3 E
(2)

과반의 출발, 김승곤 선생님과 60명의 꾸러기들 3학년 E반 친구들을 그려본다. 지난 7월 회보에 배종길이 3학년 A반 친구들의 소식을 한껏 자랑으로 쏟아 냈었는데, E반에서도 하나하나 알고 있는 소식만 전해도 문과의 재간동이 반이었음을 다 알겠지. 먼저 김승곤 담임선생님은 진해교육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하셔서 창원에 계신다고 한다.

▷자영업을 운영했거나 현업중인 친구
박박중(그린 광고기획 대표, 서울동기회장)
박용시 성재삼(삼성그룹 홍보이사) 허양도
전승치 광정웅 김기현 김범영 박구흠 박기일
조성락 조중명 이강복(부산 동아섹스폰 학원장)

▷자유업으로 소식 전하는 친구
곽영식 이성환 장영의 김동열 김지남
▷언론계 종사 경력의 친구

이실(마고 21기학생회장) 김방태
▷한의업 및 양약업 종사 중인 친구
박종욱 최용석 김성규(쌈지;아들 내외의 창원 명신부부 한의원 후원자)
▷전문직, 공직자 출신의 친구
변민욱(마산부시장) 주영국(은행지점장) 권기욱(구청국장) 구삼진(국세청담당관) 박용우(노동부지사장) 김행태(해양경찰서장)

▷교육자(교장) 출신의 친구
노재석 정현경 박금준 조정웅

★ 먼저 떠난 친구

김호 이승룡 정충만 한보성(아직 4명으로 제일 長壽 반?)

★ 소식 없는 친구(본인이 직접 소식 주거나 연락 닿는 분 좀 알려 주세요)

권성철 김성우 김양 김영진 김영환 박명동 서기홍 신용무 신원섭 신충일 안승재 안종길 윤 택휴 이상욱 이주호 정재영 조재욱 조해조 하정근 하영필

* * *

이보시게, 3학년 E반 우리 친구들!

문과 1반의 자존심을 걸고 국가고시에 매달리던 그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어느 곁에 우린 고희의 모습을 안으면서 먼저 간 친구가 4명이나 있기에 우리도 언젠가는 북망산의 찬바람을 맞이하겠지. 가는 것이 정녕 세월이요, 오는 것 또한 진정 세월이라 모든 형상이 변하여 북망산을 누가 먼저 넘을 진 몰라도 살아생전에 “야, 이게 누구. 몇 년 만이고?”

귀중한 고교시절의 마지막 “E”반이라는 소중한 인연의 친구들임을 잊지 말고 내년 5월 제주도에서 한 번 만나나 봅세.

끝으로 이 글은 만나고 있거나, 어떻게 하여 알게 된 근황들을 소개했는데 지금쯤은 많이도 달라졌겠지. 다르게 전했더라도 부디 오해나 섭하게 생각지 말고 연락들 꼭 좀 주시게나.

2011. 8. .

부산에서

3학년 E반 17번 정현경 띄움

辯護士 鄭鎮烈 法律事務所
(정종필 차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304호

02-535-3200

02-3478-7681(팩스)

010-3387-4574



7월 21일 19시에 아방궁 중화요리집에서 졸업50주년행사를 위한 제주도 답사를 다녀온 경과보고를 올리고 앞으로 우리(부산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의를 하고 월례회를 마칩니다.

참석자

강신평 구삼진 권기옥 김덕조 김대균 김수용 김준태 문호기 박영섭 박용우 송길영 이의승 이장우 이황구 윤성엽 정현경 조창식 조창제 천성태 최진화 조영민(21명)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1년 7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회비	430,000	안인준 15만원	회보수첩	200,000	인쇄(봉투포함)
		손동개 이무일 이성환 장정치 전기용 각5만원		53,950	발송
		정창봉 3만원		9,140	해외(회보, 수첩)
협찬	400,000	김영 훈가 30만원	월례회	550,000	거림한정식
		배복기 훈가 10만원	관리비	112,100	동창회사무실
광고	30,000	김용인	정수기	19,900	
모금함	137,000		유선비	5,500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997,500		지출계	1,105,090	
전기이월	4,643		차기이월	-102,947	
합계	1,002,143		합계	1,002,143	



- ♣ 박승권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경기도 군포 산본동
가야아파트 512동 602호
010-5355-5904
031-395-4849
- ♣ 조규철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벽산부루밍아파트 101-2102
011-472-6979



敬頌暑安

무더운 三伏여름을
지혜롭게 잘 보내며,
천년소나무처럼
건강을 잘 지켜나가기
를 기원하는 뜻에서
부산의 이황구 동문이
동문 여러분께 멋진
회호를 보내왔습니다.

동창회사무실에 60만원 상당의 32인치 LCD TV를 설치했는데, 구매대금은 동창회사무실 운영팀에서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 리가 1962년 2월 22일 마산고등학교 제21회로 졸업하면서 동창의 인연을 맺은
T 세월을 되돌아보니 벌써 49년의 세월을 보냈고 내년이면 졸업 50주년이 된다.

49년 동안의 지나온 길에는 그림계 찍혀진 발자국들도, 소중하고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 주는 사람과 얘기꺼리도 있었고 작아서 시시하나 안 잊히는 사건들도 이제
돌아보니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 있기에, 내년이면 졸업 50주년이
라는 큰 매듭으로 이 시대의 사연들을 남겨 놓고 가야할 한마당
어울림으로 2박 3일간 실컷 회포를 터놓고 즐겨 보자.

졸업 50주년행사 답사기

정현경 지난달 3일,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위원회(배 종길 위원장
) 주선으로 내년 5월의 제주도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
여 예견되는 ‘숙박시설’ ‘관광지’ ‘교통편’ ‘편의시설’ ‘트레킹 올레길’ ‘소요시
간’ 등의 확인 및 예약 자료를 수집, 점검, 답사를 하고 돌아 왔다.

행사예산과 관계없이 모두가 개인 예산으로 답사에 임하면서 출발부터 배를 타려
고 마산과 부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 멀리 전라남도 장흥 노력항 선착장에 마산
에서 온 배종길, 이아인, 김용인, 구해룡, 김성규, 변재국, 이종량, 부산의 이의승,
조영민 친구들이 9시에 만나 해룡이가 준비한 주먹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10시에
출항하는 오렌지호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승선하여 지루한 항해 끝에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12시 50분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준비된 렌터카 편으로 곧장 제주공항
으로 달려 서울의 박박중, 조용석 친구들을 마중을 하여 행사 첫날의 일정으로 예
정하고 있는 곳부터 살피나갔다.

♣ 첫째 날 예정하고 있는 일정 답사

▷ 볼거리; 한라수목원과 에코랜드

한라수목원은 제주자생식물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및 자원화를 위
한 학술적·산업적 연구와 함께 자연생태 체험 학습관으로 소개되고 있다.

숙소로 가는 도중 숲 속 기차여행으로 즐기는 에코랜드를 구경할 수 있다. 에코랜
드 테마파크의 볼드윈 기관차로 30만평의 한라산 원시림을 모두가 여행하며 신비
의 숲 ‘꽃자왈’ 생태계를 탐방하는 계획을 점검했다.

▷ 먹거리; 제주칼치 구이조림

그저 왕소금만 슬슬 뿌려서 구운 큼직한 칼치구이. 가시를 발라내고 하얀 속살을
젓가락에 큼직하게 잡는 즐거움이랄까, 담백한 갈치 살에 배어든 매콤한 굴물 맛
이 입맛을 확 돋구리라. 답사팀에게 아름다운 사연을 하나 만든 집이 있으니 ‘권
당’ (제주방언으로 ‘친척’이란 뜻) 칼치조림집 이야기다. 정방폭포 곁에 있는 식당
으로 ‘쌈지’ 친구가 산악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라산을 15회나 등반하는 과정의
만남에서 식당 사장 강 XX 여사와의 친분(?)이 고만고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
여 답사팀을 초대하여 한턱 쏘 얘기올시다.

본부동창회 제작 : 구해룡(농협) 821155-56-153953

▷ 즐길 거리

50주년 행사의 메인이벤트가 될 숙박 예정지 ‘금호 리조트’를 찾았다.

금호리조트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문 관광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탁 트인 전망과 아름다운 해변 산책길 및 우리 격에 맞는 첨단 각종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고 격조가 느껴지는 최고급 디럭스 룸이 우리들의 휴식을 반길 것으로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저녁 만찬과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숙소에서 저녁 식사 후, 배 종길 추진 위원장 주재로 오늘의 답사 의미를 되새기면서 <졸업 50주년 행사계획>자료를 내 놓고 50주년 행사를 완벽하게 치루기 위한 다음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다.

▷참여 예상 동문 및 대상자 확대 <주소불명자 확인 초청여부>

▷참여 분위기조성 <회보활용을 통한 참가권유 및 7월부터 반별 동문현황 게재>

▷행사소요경비 조달 방안<경비의 최소화 및 자비부담, 기금에서 지원 등>

▷행사진행 일정 및 즐거운 추억나누기프로그램 구성 등이 검토되면서 이 날

토의된 내용들은 각 지역별로 전달되어 보완해서 12월까지 확정 짓기로 하였다.

♣ 둘째 날 예정하고 있는 일정 답사

▷ 불거리; 석부작 테마공원(돌문화공원)

석부작 테마공원은 용암의 신비를 담은 예술정원 이라고 했다. 버리기 쉬운 한낱 돌에 생명을 부여하며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돌의 문화를 이끌어갈 '석부작 테마공원'이란 이름으로 탄생시켰다고 했다.

▷즐길 거리; 사려니 숲길, 올레길 제7코스

-사려니 숲길

제주도 올레길과는 별도로 평화롭게 걸으면서 삼림욕과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사려니 숲길'이다. 숲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멜라토닌은 우리 인간에게 기적을 만들어 내는 순수한 자연의약 신비의 약이라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밝힌 바 있다.

-올레길 7코스는 외돌개(드라마 대장금 촬영지)를 출발하여 해안 올레바다와 직접만나는 멋진 절벽 및 암벽, 나무 산책로 등 그대로 1시간 동안의 문화 체험 코스다.

-거문 오름; 거문오름의 '거문'은 신(神)을 칭하는 신령스런 오름을 뜻하는 곳으로 2일 전 사전예약을 하여야 하며 1일 200명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특수 문화재 보호지역이다.

▷ 먹거리; 제주흑돼지 철판구이

제주산 흑돼지는 청정한 자연에서 길러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영양이 많아 다른 지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육질이 좋기로 유명하다기에 이름난 '하영' 식당에서 시식을 해 봤다.

석부작 테마공원에서 변재국이 첫날 숙소에서 홀라 게임으로 수입 좀 잡았다고 구입한 '산삼근' 보양 술이 흑돼지 구이 입맛을 더욱 UP 시켰다.

♣ 셋째 날 예정하고 있는 일정 답사

▷ 불거리; 마라도 투어

50주년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한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 투어다.

모슬포항에서 1Km 해상에 고구마 모양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으며 일출과 일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성당, 교회, 기원정사가 있고 초콜릿 박물관, 마라분교, 그리고 육지에 최초로 자장면 시킨 사람도 살고 있다.

▷ 즐길 거리; 섭지코지, 성산 일출봉

제주도 동쪽해안에 불록 튀어나온 섭지코지는 봄철이면 노란유채꽃과 제주조랑말 등을 묶어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풍경이 일품이다.

드라마 단적비연수, 올인의 촬영 세트장으로 유명해진 섭지코지는 협자연대가 있으며 등대가 자리 잡고 있어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 먹거리 ;자리돔, 자바리<다금바리>

모슬포 근해에서 잡히는 자리돔은 구이 감으로 일품요리가 되고 서귀포에서 잡히는 자리돔은 작고 뼈도 비교적 부드러워 물회나 횡감으로 좋다는데 우리들의 밥상에는 무엇이 입맛을 정리시켜 줄는지. 그런데 다금바리는 최고급 횡감으로 우리형편에는 먹자는 게 좀 무리.....

★2박 3일의 일정으로 50주년 행사 과정을 답사해 봤다.

답사는 어디까지나 예정 프로그램에 따랐지만 실제 행사 때는 더 많은 불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찾고, 선택하면서 어울림 잔치로 추진할 것이라는 배 종길 추진 위원장의 표정에서 많은 동기들이 동참하여 얼굴만 보여 준다면 뭐든지 다해 보여 훗날 제주도에서 가진 졸업 50주년 행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아련한 추억을 남긴 후회 없는 행사로 모두의 삶에 꼬리표 하나를 붙여 주겠다는 의욕이 대단함을 엿볼 수 있었다.

전국에 흩어져 칠순의 삶을 넘나들고 있는 21기동기들이여!

마음은 아직도 이팔청춘이고 싶을 진데 일흔 줄의 우리 인생 80보다 젊고 90보다 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10년, 20년이 저만큼 남았네 그러. 이제부터 지나가고 다가오는 세월 앞에 구차한 사연일랑 접어두고 내년 봄 5월에 제주도에서 만나, 한 잔의 별똥 주에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 하며 마음이나 함 녹여보세.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마고 21기의 끈끈한 학연이 아닌가. *

2011년 8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2일(월) 오후 6시30분
장소 : 가야추어탕(248-4560)
오동동파출소 인근



부인회

일시 : 22일(월) 12시 30분
장소 : 가야추어탕(248-4560)
오동동파출소 인근

